

호떡 뒤집고 덮밥 200인분 뚝딱… ‘로봇 쉐프시대’ 성큼

▶ 푸드테크 시리즈

〈3〉 로봇이 요리하는 세상

2030년 인간 대체 로봇 2000만개
호텔·식당 등 요식업 등서 역할↑
로봇 주문→매출 상승 견인 분석도
국내 기업도 순차적으로 도입 계획



로봇 레스토랑 '스파이스'.



/달콤커피

주문부터 요리, 서빙, 결제까지 모두
로봇이 해내는 ‘로봇 식당’이 등장했
다. 비용 절감,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
를 바탕으로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빠
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연구·컨설팅 업체 ‘옥스퍼드이
코노믹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
지 로봇이 대체할 인간의 일자리는
2000만 개. 이 가운데 호텔·식당 등 접
객업과 소매업에서 로봇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로봇 효과…인건비 ↓·매출 ↑

로봇을 쓰는 목적은 효율을 높이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식당은 로
봇을 통해 절감한 비용을 ‘맛’에 투자해
양질의 음식을 저렴하고 빠르게 소비자

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출신 로
봇 공학자 20여 명이 지난해 5월 공동
오픈한 보스톤의 로봇 식당 ‘스파이스
(Spyce)’의 경우, 사람 대신 7대의 로봇
주방장이 요리한다.

이곳에서 인간이 하는 일은 고명을
얹거나, 서빙을 하는 정도다. 로봇의 조
리 시간은 평균 3분 정도. 1시간 동안
200그릇 가량의 덮밥을 만들어낼 수 있
는 셈이다.

가격은 7.50달러(약 8500원) 정도지
만 품질은 여느 식당에 뒤쳐지지 않는
다. 미슐랭 가이드 별 2개를 획득한 뉴
욕의 프렌치 레스토랑 요리사 다니엘

불루가 메뉴를 고안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도 로봇 식당이 속속 등장하
고 있다.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해마’ 식당에서는 모든 서빙
을 로봇이 진행한다. 또, 알리바바의 라
이벌인 징둥닷컴도 텐진에 무인 식당인
'JD X 미래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로봇을 통한 주문 과정이 매출 상승을
견인한다는 분석도 있다. ‘하버드 비즈
니스 리뷰’가 멕시코 음식 전문점 ‘타코
벨’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키오스크(무
인결제기계)를 통한 1인당 주문 단가가
직원을 상대로 한 주문 단가보다 20%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직접 주문함으로써 소스 등을 자유롭게

주가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짧은총을 중심으로 확산 중
인 ‘언택트(uncontact, 비대면·비접촉)’ 소
비문화’가 식당의 ‘무인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국내도 ‘로봇 식당’ 경쟁

전 세계가 ‘로봇 주방장’ 모시기에 주
목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빨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커피 전문 브랜드 ‘달콤커피’의 로봇
카페 ‘비트’는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
는 커피 전문점이다. 유지 관리를 위한
인력을 두지 않는 무인화 시스템으로
24시간 운영된다. 이곳은 애플리케이션
을 통해 주문하고, 줄을 설 필요 없이 알
림을 통해 바로 음료를 받을 수 있다.

KT가 선보인 ‘ON 식당’도 소비자
반응이 좋다. 5G 체험을 위해 오픈한 이
식당에서는 로봇이 호떡과 커피를 만들
어 준다.

LG전자는 CJ푸드빌과 손 잡고 식당
에서 사용할 로봇을 공동 개발한다. 개
발한 로봇은 연내 실제 매장에 도입해
시범 운용될 예정이다. 안내, 서빙, 조
리 등 다양한 로봇을 기획·개발해 개발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장에 적용한
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렇듯 인간의 손을 대신
하는 ‘협동 로봇’ 개발·도입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식당에서 로봇
을 보는 일은 점차 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ABI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협동로봇
시장은 2015년 9500만달러(약 1128억
원)에서 내년 10억달러(약 1조1875억
원)로 5년 새 10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비용을 절
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로봇 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나선 만큼, 로봇의 활용
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
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세대교체에 신규 사업자까지 가세… ‘변화의 바람’ 타고 비상 준비

2019년 하반기 산업 전망

⑤ 항공업계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 사업 확장
아시아나, 박세창 경영 승계 예측
中 신규 운수권 배분 가시화 전망
유가 안정, 수요 증가에 실적 기대
연내 취항 위해 신규 LCC ‘총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



계획서 이행 가능성 검토에 들어갔다.

에어프레미아는 김종철 전 대표 측과
일부 투자자들이 극심한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바 있다. 에어프레미아 투자자
들은 지난 4월 이사회에서 김 대표 측의
강한 반발에도 심주업 이사를 공동대표
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각자 대표 체제
에 반대한 김 전 대표가 물러나고 심주
업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됐으며 최근
김세영 대표가 취임해 다시 공동 대표
체제를 갖췄다.

에어로케이는 항공기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연내 취항 목표를 이루지 못
하게 됐다. 신규로 면허를 받은 항공사는
1년 이내에 운항증명(AOC)을 신청
하고 2년 이내에 취항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취항 이후에도 3년간 사업계획
서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에어로케이는 오는 8월 AOC를 앞두고
사업계획서대로 항공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오기로 예정됐던
항공기는 제작이 늦어져 내년 2~3월경
도입하게 된 것. 에어로케이는 AOC 신
청까지 기한이 촉박한 만큼 5년 내외 A
320기종 중고 항공기를 리스하는 방식
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했다.

반면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
이강원은 3개 LCC 중 유일하게 연내
취항 가능성이 커졌다.

플라이강원은 기장과 부기장 확보를
마쳤고 이번주 1기 승무원 47명도 입사
해 오는 10월 취항이 가시화되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정비, 운항관리, 객실, 위
험물 등 법으로 정한 훈련요구량을 미리
충족할 수 있게 됐다. 플라이강원은 비
상탈출시현·야간 비행을 포함한 50시간
의 비행 훈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AO
C를 취득할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을 상반기 항공업계는 세대교체와 함
께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고조양호 한
진그룹 회장의 별세와 박삼구 금호아시아
나그룹 회장의 사퇴로 모든 시선은
자연스럽게 3세 경영인인 조원태 현 한
진그룹 회장과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
장에게 쏠렸다.

항공업계는 하반기 여객 수요 증가와
유가 안정으로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
다. 올해 초 면허를 취득한 신규 저비용항
공사(LCC) 3인방인 에어프레미아, 에어
로케이, 플라이강원의 노력도 돋보인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체제 본격화

7일 업계에 따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오는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문
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간담회에 참여
한다. 문 대통령은 국내 30대 그룹 총수
등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검토 중인데
조 회장도 여기에 초청받을 것으로 전
해졌다.

고조양호 회장이 지난 4월 미국에서
별세한 이후 같은 달 24일 그의 장남 조
원태 사장은 신임 한진그룹 회장에 올
랐다. 조 회장은 취임 후 상속세 문제와
가족 간 불화설에 시달렸지만 ‘항공업
의 유엔(UN) 종회’로 불리는 국제항공
운송협회(IATA) 연차총회에서 의장

직을 맡은 뒤 국제 무대에 등장해 존재
감을 드러내며 경영권을 확고히 다져가
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항공사 최초로 미국 항
공제조업체인 보잉사의 ‘드림라이너’ B
787-10 기종 20대 등 11조원 규모의 최
첨단 기재도입을 결정하기도 했다.

또한 인천발 중국·필리핀 노선 등 하
반기 신규 노선 대폭 신설, 유럽 항공제
조업체인 에어버스사와의 차세대 날개
개발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복합재 기술협력을 통해 주가적인 사업
창출 등 ‘경쟁력 다지기’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 함께 항공업계 ‘양대산
맥’인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작업은 하반
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한 재
무구조 개선에 나선 아시아나항공은 연
내 매각을 목표로 조직, 노선, 서비스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아시아나항공
의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가 나올 예정
이다. 이후 투자의향서 접수(예비입
찰), 분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주
식매매계약(SPA) 체결 등의 절차를 순
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은 지난 3월 그룹 내에서 맡고 있던 회
장직과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산업의 대
표이사직, 등기이사직, 금호고속 사내
이사직 등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이
에 향후 그룹 재건 작업은 박세창 아시
아나IDT 사장이 주도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박 사장은 박 전 회장과
함께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금호
고속 지분 50.7%를 갖고 있다.

◆여객 수요상승, 하반기 실적 반등 기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반기 국내 항
공업계의 반전도 예고된다.

올 1분기 대한항공은 매출액 3조498
억원, 영업이익 1482억원의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5
억원 증가하며 역대 1분기 기준 사상 최
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1768억원 대비 16.2% 감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별도기준 매출액 1
조4385억원, 영업손실 118억원의 1분
기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아시아나 역
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
으나 영업이익은 전자 전환했다.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기록한 저비용
항공사(LCC)들 역시 제주항공을 제
외하고는 영업이익 감소를 기록했다.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1%, 19.8% 영업이익이 줄었다.

업계는 일회성 비용 증가 및 노선 수
의 감소 등이 실적 하락의 원인으로 꼽
고 있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
와 환율 상승 등의 탓이 컸던 것으로 분
석한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항공여객
수요 상승 및 유가 안정의 덕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수요
공급 면에서 중국 신규 운수권 배분 효
과가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신규 LCC 취항준비 총력전 ‘진땀’

올해 면허를 취득한 플라이강원, 에어
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신규 LCC들도
취항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20일 심주업·김
세영 2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을
마무리하고 국토교통부에 변경면허 신
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까
지 면허 유지와 취소를 놓고 기존 사업